

베어버리기 아까운 山野의 조경수 10선 (1)

김호준 박사 / 그린과학기술원 원장



■ 산야의 조경수



조경이란 한자 造景에서 찾을 수 있듯이 조(造)는 '만들다'이고 경(景)은 '경치'라는 뜻으로서 경치를 꾸미는 일이다. 산과 들, 강과 바다 등의 자연을 어느 지역이나 장소에 도입하여 그곳의 경치(景致, view), 경관(景觀, landscape), 풍광(風光, scenery), 풍경(風景)을 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때 소요되는 흙과 돌, 풀과 나무 등을 조경소재라 하고, 특히 수목을 조경수목 또는 조경수(造景樹, landscaping trees)라고 한다.

조경 수목은 나무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휴식을 주는 식물이다. 또한 크기와 굵기, 모양에서 표현되는 수형(樹形, tree form, type of tree), 잎의 크기나 모양, 꽃피는 시기나 색깔 등에 따라 그 쓰임새를 달리 할 수 있는 조경의 필수 소재이다.

조경 소재로서의 나무는 산야(山野)에서 자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조경 업이 확대, 발전함에 따라 그 소요량 또한 증가하여 자연보호 및 수요량 충족을 위해 집단으로 재배하게 되었다. 그래서 조경수라고 하면 의례히 재배, 판매되는 나무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재배 식재되지 않은 나무는 조경수가 아닌, 그저 잡목으로 취급하여 굴취 제거하거나 베어버리는 사례가 많다.

산야의 자생 수목은 재배 수목처럼 이용적 측면에서 찢고 맞추어진 소재는 아니지만, 수십 년 동안 한 자리에서 그곳의 토양과 기후에 적응해 살아온 나무다. 생존력이 강해 병해충 피해도 적고 관리비용도 거의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용도에 불편함이 없고, 없애지 않아도 크게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냥 그대로 두거나 방해되는 몇몇을 정리만 해도 훌륭한 조경가치를 발휘한다.

특히 보존녹지가 많은 골프장 또는 공원의 경우 산야의 자생 수목은 위치변경 없이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 평가가치가 높은 자생수목은 그 나무를 기준하거나 노출시켜 돋보이게 설계한다면 자연 순화적인 조경이 될 뿐만 아니라, 차별화가 되는 경관녹지를 조성할 수 있다. 또한 식재한 나무에서처럼 다듬고 가꾸어야 하는 비용이나 노력이 적게 들고 야생성이 강해 크게 간섭하지 않는다면 관리자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



표1. 베어버리기 아까운 산야의 조경수 10선

수종	형 상	꽃 색깔	개화기
생강나무	관목(아교목)	노란색	3~4월
국수나무	관목	흰색	5~6월
찔레나무	관목(덩굴성)	흰색, 붉은색	5~6월
청미래덩굴 (청가시덩굴)	관목(덩굴성) 관목(덩굴성)	항녹색 항녹색	5월 6~7월
인동덩굴 붉은인동	관목(덩굴성) 관목(덩굴성)	흰색, 노란색 붉은색	5~7월. 5~9월
개다래	관목(덩굴성)	흰색	6~7월
누리장나무	관목	흰색계	7~8월, 9월(초순)
음나무	교목	흰색계	7~8월.
붉나무	아교목	항색계	8~9월
산초나무 (초피나무)	관목 관목	항색 항색	8~9월 5~6월

1. 생강나무

(1) 계통과 자연분포

생강나무(*Lindera obusiloba* Blume)는 자웅이주(雌雄異株, dioecism, 암수딴그루)로서 봄이 되면 가장 먼저 노랗게 꽃 피는 봄의 전령이다. 피자식물강(被子植物綱, Angiospermae) 미나리아재비목(目, Ranales) 녹나무과(Lauraceae) 생강나무속(屬, *Lindera*)의 낙엽활엽관목(落葉闊葉灌木) 또는 아교목(亞喬木)으로서 한국, 중국, 일본에 분포한다.

생강나무 잎은 앞 부위가 갈라지는 결각(缺刻, lobation, 잎의 앞 또는 가장자리가 깊게 파인 것)이 있다. 결각은 보통 3개

로 갈라지는데 결각이 없는 품종을 둥근잎생강나무(*Lindera obusiloba* for. *ovata* T. LEE), 결각은 있으나 잎 뒷면에 긴 털이 있는 것을 털생강나무(*L. busiloba* for. *villosum* Nakai)라고 한다. 또 줄기 위쪽의 잎은 5개, 중간 부분의 잎은 3개로 갈라지며 아래쪽 줄기의 잎은 달걀 모양의 원형인 품종을 고로쇠생강나무(*L. busiloba* for. *quinquelobum* Uyeke)라고 한다(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 생강나무와 산수유나무 구분

생강나무와 산수유나무 꽃은 서로 닮았고 피는 시기도 비슷하여 혼동하는 사람이 많다. 우선 생강나무와 산수유나무는 사는 곳이 다르다. 산수유는 마을 밭둑에서 사람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지만, 생강나무는 산자락에서 자생한다. 생강나무는 우리나라 전역의 산에 자연 분포하는 향토수종으로서 산기슭이나 계곡의 물과 가까운 곳에서 자란다. 햇빛 요구도가 있는 수종이기는 하지만 내음성(耐陰性, shade tolerance)이 있어 다른 나무 밑, 약간의 음지에서도 어울려 산다.

분류학적으로 생강나무는 녹나무과에 속하고 산수유는 층층나무과이다. 꽃 피는 시기가 비슷한데, 같은 동네라면 생강나무가 조금 더 일찍 핀다. 그래서 봄의 전령이란 별명이 붙었다. 생강나무 꽃은 10여개의 작은 꽃이 정겹게 다닥다닥 붙어서 1송이로 탐스럽게 피는데, 산수유 꽃은 꽃자루가 긴 20~30개의 작은 꽃이 조금씩 떨어진 1송이를 이룬다. 형제 자매간이라도 서로의 프라이버시(privacy)를 존중하는 셈이다.

산수유 줄기의 수피는 누더기처럼 더덕더덕 붙어 거칠지만, 그에 비하여 생강나무 수피는 밍밍한 편이다. 잎의 모양도 다르다. 산수유 잎은 전면이 광택이 나지만 생강나무 잎은 광택이 없으며 앞 가장자리가 3갈레를 갈라진다. 산수유 열매는 긴 타원형으로서 붉게 익는데 생강나무는 콩알만 하고 검게 익는다.

■ 생강나무와 산수유나무 꽃, 잎과 줄기 구분



생강나무 꽃



산수유나무 꽃



생강나무 잎



산수유나무 잎



생강나무 수피



산수유나무 수피

(2) 이름의 유래

- 학명 : *Lindera obusiloba* Blume
- 영명 : Blunt-lobe spicebush
- 국명 : 생강나무, 동박나무, 개동백나무, 산동백
- 한명 : 黃海木(황해목), 三鉈風(삼첩풍)

■ 생강나무 이야기

생강나무 잎과 가지는 방향성의 정유(精油) 성분이 있어 가지를 꺾거나 잎을 따서 문질러 상처를 내면 생강 냄새가 나서 '생강나무'라는 이름이 붙었다. 영명은 'Japanese spicebush' 또는 Korean spicebush'라고도 불리었는데 Blunt-lobe spicebush로 정리되었다(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옛날에는 생강나무 열매를 따서 말렸다가 기름을 짜 여인들의 머릿결을 곱게 단장하는 머릿기름으로 썼고 밤에는 등불을 밝히는 데에 사용하였다. 지금도 강원도와 경상북도 북부지방에서는 기름을 짜는 동백나무와 유사한 「동박나무」, 「산동백」, 「개동백」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남쪽에서만 나는 값비싼 「동백기름」과는 달리, 전국의 산야에서 채취할 수 있는 생강나무 「동박기름」은 여인들의 친숙한 화장품 목록이다.

꽃말은 '수줍음, 사랑의 고백, 매혹'인데, 강원도가 고향인 김유정 선생님의 소설 「동백꽃」 두 주인공에게서 잘 묘사된다. 말괄량이처럼 활달한 소작농 마름의 딸 「점순」과 순박하고 어수룩한 소작인 아들 소년의 성품이 꽃말에서 잘 나타난다. 마름의 눈에 잘 들어야 내년에도 소작할 논과 밭을 이어갈 수 있고 도지(賭地, 소작료)를 좀 더 후하게 깎아주기도 한다. 농지에서 펼쳐지는 권세가 한 발짝 멀리 떨어진 주인보다 더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마름의 딸 점순은 소작농 아들에게 나름대로 관심을 표현하지만 소년은 도통 눈치가 없다. 감자를 맛있게 구워서 내밀며 접근해도 소년은 받기를 거절한다. 평소 자기를 골렘 먹던 점순이가 알미웠고, 주면 그냥이나 줄 것이지 '너희 집에는 이거 있지?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하면서 자존심을 굽기 때문이다. 무안당한 점순은 힘이 센 자기네 수탉과 소년의 집 수탉을 싸움 붙이면서 악을 울린다. 매번 자기네 닭이 지기만 해 소년은 고추장을 먹여 봐도 소용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에서 나무 한 짐을 해 내려와 보니 점순이가 또 싸움을 붙여 자기네 닭이 꺾꽂 소리 지르며 몰리고 있었다. 화가 난 소년은 지게 작대기로 점순네 닭을 후려쳐 때려 죽였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마름 집의 닭을 죽인 것이다. 겁이 덜컥 난 소년은 울음을 터뜨린다. 그러자 점순이 바짝 다가와 자기 말만 잘 들으면 이르지 않겠다고 한다. 살길을 찾은 소년이 그러겠다고 하자, 점순은 소년을 낚다 떠밀어 두 남녀는 흐드러지게 핀 노란 동백꽃 속으로 함께 파묻혀버린다.

옛날 시골에서는 닭을 자유롭게 놓아 키웠다. 풀을 뜯고 지렁이나 벌레를 잡아먹다가 해질녘에나 외양간 횃대에 오르고 이틀날 다시 밖으로 나와 모이를 찾는다. 그러다보니 이웃집 닭과는 특하면 싸움질이다. 암탉은 몇 번 폴짝폴짝 뛰면서 힘겨루기를 하다가 조금 약한 놈이 콩지를 빼면 싸움이 끝난다.

그러나 수탉은 다르다. 선방이 중요한데, 벼슬을 물린 놈이 진다. 원수지간이 된 닭은 벼슬을 물고 놓아주질 않아 물린 닭은 꺾꽂 소리 지르면서 물린 채 질질 도망가기도 한다. 다음날 억울한 닭이 간혹 달려들기도 하지만, 한번 진 닭은 쉽게 도전하지 못한다.

보다 못한 주인은 힘이 좋아질까 하고 강제로 입을 벌려 고추장을 먹이기도 한다. 그래도 소용이 없다. 고추장을 먹은 수탉은 벼슬이 빨개지면서 눈을 뚱그랗게 뜨고 험뎡거린다. 매운 고추장이 들어갔으니 속이 뒤집혔을 게다. 삶은 돼지고기 비개 정도는 먹어야 힘이 좋아진다. 두서너 번 돼지 비개를 먹은 닭은 자기도 모르게 힘과 자신감이 생기는지 져던 놈에게 시비를 건다. 주인은 이기는 자기 집 수탉을 보며 씨익 웃는다.

그런데 문제는 힘을 주체하지 못한 이놈이 특하면 싸움질이나 하고 암탉을 못살게 군다. 때로는 손님으로 사립문에 들어서는 여자 아이나 알보이는 어른에게조차 겁 없이 달려든다. 그런 집의 강아지는 맥을 못 추고 슬슬 수탉의 눈치만 보는 꼴이 된다.

(3) 형태적 특징

① 수형, 줄기와 가지 - 원개형 수형

지표에서 여러 대의 줄기가 올라와 갈라져서 전체적으로 수관 상부가 평평한 원형을 이루는 원개형(圓蓋形) 수형을 이룬

다. 수고 3m 내외 크기의 낙엽활엽관목인데 때로는 6~8m까지 자라 아교목(亞喬木)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나무껍질(수피)은 짙은 회흑색이고 중간 중간에 흰 띠를 두르듯 무늬가 나타난다. 어린 가지는 약간의 황색이 도는 녹색이고 긴 타원형의 껍질눈(피목)이 많다. 겨울눈(동아)에는 털이 없고 앞눈은 붓 모양의 긴 타원형이며 꽃눈은 4~6mm의 둥근 형으로서 앞눈보다 크다.

■ 개화한 원개형 수형 생강나무



■ 생강나무 어린 녹색가지 피목(□)과 꽃



② 잎 - 어긋나기, 3결각

잎은 어긋나기(互生)하며 알 모양 원형(난원형)~넓은 난형으로서 길이 5~15cm, 폭 4~13cm 정도다. 끝은 대부분이 3갈레로 갈라지는데(3결각), 때로는 갈라지지 않거나 2개로 갈라지고 결각(缺刻, lobation) 하나는 뚜렷하지 않은 잎도 있다. 주맥은 3개로 갈라져 측맥으로 이어진다. 가을에는 노랗게 단풍이 든다.

잎자루(엽병)는 1~2cm이고 갈색이 돌면서 털이 있다. 잎 가장자리는 톱니(거치)가 없어 밋밋하고 끝이 둥글다(둔두). 잎자루 방향의 기부는 둥근 모양(원저)으로서 잎자루에 이어진다. 뒷면 잎맥에 털이 있다.

■ 생강나무 3결각 잎과 결각 없는 잎(↑)



■ 생강나무 3결각 잎과 2결각 잎(↑)



■ 아름다운 단풍과 깻잎 한 장

노랑은 평화와 휴식을 주는 색깔이다. 황색으로 물든 생강나무 단풍은 마음이 편안하고 평화로운 심신이 되게 한다. 걱정적인 붉은색이나 차가운 파란색과는 달리 노란색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 그래서 비오는 날 빌려주는 노란우산, 생계위험을 받는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법 등이 노랑으로 표현된다. 철원 고석정 해바라기 밭, 목호향 매립지 국화꽃밭 등 지방마다 도시생활의 피곤함에서 벗어나고픈 시민들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는 노란 꽃밭 조성이 활발하다.

단풍은 절정의 황색에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갈색을 띠는 늦 단풍이 된다. 늦 단풍 생강나무 잎은 잘 익은 깻잎 장아찌를 닮았다. 갓 지은 밥에 깻잎 장아찌 한 장 올려 입에 넣으면 할머니와 어머니 생각이 난다. 생강나무 잎은 나물, 부각, 차(茶)로 이용할 수 있다. 봄에 나오는 어린잎은 나물로 무쳐 먹고, 조금 자란 잎은 김부각처럼 만들어 먹을 수 있다. 물로 씻은 생강나무 잎에 찹쌀 풀을 골고루 발라 기름에 튀겨 먹거나 말렸다가 먹을 때 튀겨서 먹는다.

■ 잘 익은 깻잎 장아찌 닮은 생강나무 단풍



■ 봄나물로 무쳐먹는 어린 생강나무 잎



③ 꽃과 열매 - 꽃(암수 다른 꽃, 산형화서). 열매(구형)

암수딴그루(자웅이주, 이가화)로서 3월에 노란 꽃이 잎보다 먼저 핀다. 꽃자루(화경) 길이가 1cm인 작은 꽃 여러 개가 다닥다닥 붙어서 꽃자루(화경)가 없는 우산살 모양(산형화서)의 큰 송이로 뭉쳐서 잔가지에 달린다. 작은 꽃 개개의 꽃자루는

열매가 달릴 꼭지(과경)로서 털이 있다. 수꽃은 꽃잎(화피) 6개와 수술 9개가 있고, 암꽃은 꽃잎(화피) 6개, 암술 1개와 퇴화한 수술(헛수술) 9개가 있다.

열매는 둥글고 익으면서 광택이 난다. 직경은 7~8mm이며 녹색에서 황색으로, 다시 붉게 변하면서 9~10월에 검게 익는다. 가을이면 붉고 검게 익은 열매의 반짝거림이 꽃 못지않게 아름답다.

■ 생강나무 꽃과 잎눈(↑)



■ 생강나무와 일상의 행복

생강나무는 자웅이주(雌雄異株)다. 은행나무, 주목, 비자나무, 버드나무, 식나무, 소귀나무처럼 암나무와 수나무가 따로 있다. 암나무는 열매를 맺고 수나무는 꽃만 핀다. 은행나무는 떨어져 밝힌 열매 냄새가 고약해 나무 밑을 지나기 꺼려하고, 봄바람에 날리는 버드나무 솜털은 비염을 일으킨다고 해서 베어버린 가로수가 많다.

긴 겨울 끝자락에 일찍 피는 생강나무 꽃은 향기롭기만 하다. 꽃가루가 바람에 날리는 일이 없고 꿀과 꽃가루는 일찍 눈을 뜬 곤충들에게 중요한 먹이가 된다. 꽃은 차(茶)로 우려 마시면 좋다. 꽃봉오리를 감싸던 마른 갈색 화피는 따버리고 말렸다가 따뜻한 물에 우려내어 마신다. 흰 잔에 뜨거운 물을 붓고 그 위에 말린 생강 꽃을 얹으면 꽃잎 하나하나가 퍼지는 모습이 신기하다. 유리 주전자에 생강 꽃 한줌을 넣고 더운물을 부으면 노랗게 우러나온 은은한 색깔이 곱다. 눈 오는 겨울 창밖을 내다보며 찻잔을 기울이면 아련한 옛 친구가 떠오르는 꽃잎 차(茶)다. 싹눈이나 새잎도 따서 녹차 잎처럼 덫어서 우려 마시면 좋다.

늦가을 잘 익은 열매는 과즙이 많아 산새들이 즐겨 찾는다. 사람도 붉고 검게 익은 열매의 반짝거림에 행복하다. 까맣게 익은 열매는 따서 말렸다가 농사철이 끝난 늦가을~초겨울 기름틀에 짜서 보관한다. 이 시기에 짜는 이유는 바쁜 농사가 끝나기도 했지만, 그동안 말려야 하고 온도가 낮은 때 짜놓으면 쉬 변질되지 않는다. 일 년을 두고 사용하는 기름이라 변질되면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말린 나무껍질(수피)은 삼첩풍(三鈇風), 가지는 황매목(黃梅木)이라 하여 한약재로 쓰인다. 한자명 황매목(黃梅木)도 말

린 한약재 가지에서 온 이름이다. 오한과 신열(병으로 오르는 열), 신경통, 타박상으로 멍들고 아픈데, 감기, 산후에 몸이 붓고 팔다리가 아픈 증세에 효과 있다고 한다(네이버 지식백과).

(4) 생육적지 - 적습지, 양수

모든 수목의 생육적지는 적당히 토양수분을 보유하면서 물 빠짐이 좋은 곳이다. 생강나무 또한 그런 곳이 생육적지다. 생강나무가 자연 분포하는 곳을 보면 개울과 가깝기는 하지만, 경사가 있어 물 빠짐이 좋다. 또 경사면 바위 사이의 토양이 있는 곳이다. 바위는 물을 빠르게 흘려보내기는 하지만 바위 밑의 토양은 오래도록 물을 잡고 있어 다른 곳보다 물 부족을 적게 겪는다.

생강나무는 숲 가장자리에 분포하는 경향이 높다. 숲 가장자리는 숲속에서보다 햇빛이 많고 공간이 상대적으로 넓다. 관목류는 다른 나무 밑에서는 햇빛 부족으로 생육이 좋지 못하다. 그런데 생강나무는 관목임에도 다른 나무 밑에서 잘 자란다. 그 이유는 생강나무가 내음성을 갖기도 하지만 자라는 곳을 잘 살펴보면, 상층의 밀도가 낮아 햇빛이 좋고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는 곳을 알 수 있다.

■ 산기슭, 산 가장자리에 자생하는 생강나무



(5) 식재와 관리

① 번식

번식은 잘 익은 열매를 채취하여 가을에 직파하거나 노천매장 하였다가 이듬해 봄에 파종 또는 포트(pot) 파종을 한다. 발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포장에 직파하기 보다는 포트(Pot) 파종하는 것이 좋다. 농업용 또는 원예용 상토를 채운 포트

■ 숲속 공간이 확보되는 다른 나무 밑에 자리 잡은 생강나무



에 1~2알씩 심어 노지에 묻는다. 포트 파종을 할 경우 포트가 땅에 완전히 묻히지 않도록 하여 겨울동안에도 건조 등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포트 종자가 싹이 트고 줄기로 자라면서 잎이 3~4장 나오면 배추 모종 심듯이 포장에 옮겨 심는다. 포트에서 뺀 묘목을 그대로 심고 나중에 조금 자라서 생존이 확인되면 가까이 붙여 약한 묘목은 제거한다. 유묘 시에는 반드시 차광막으로 그늘을 만들어 음지에서 키운다. 묘목이 30~40cm 이상 컸을 때에도 반그늘에서 자라도록 한다.

삽목은 당년에 새로 나온 가지를 삽수로 이용하는 녹지삽(綠枝挿, greenwood cutting)을 하거나 삽목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열매가 달렸던 2년생 가지를 붙여 녹지와 숙지를 겸하여 삽목하기도 한다. 삽목 시기는 봄과 여름이다. 그러나 종자 발아율이 좋기 때문에 삽목으로 묘목을 얻기보다는 종자번식이 오히려 유리하다.

② 식재와 관리

■ **식재지 선정** : 녹지 개발을 할 때 굴취되는 자생 생강나무는 가식하였다가 적절한 위치에 배식한다. 가식 또한 이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녹지에 생강나무를 도입 식재할 때에는 자생지를 참고하여 식재지를 선택하되, 햇빛이 너무 강하지 않는 곳이 좋다.

■ **구덩이 보습력** : 자생 생강나무를 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심는 일은 다소 어려운 편이다. 산지에서 자생해왔기 때문에 뿌리가 멀리까지 뻗어있고 굵은 뿌리 가까이에 잔뿌리가 적어 뿌리분 뜨기가 힘들다. 구덩이 바닥에 보습용으로 농업이나 원예용 상토를 넣고 그 위에 나무를 얹는다. 나무를 얹히고 나서도 뿌리분과 구덩이 사이의 공간에 상토를 채워 보습력을 높인다.

■ **유공관 매립** : 물 관리가 활착여부를 좌우한다. 식재 구덩이 3~4곳에 유공관을 설치하고 물분을 만들어 관수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유공관은 뿌리발달에 유익하고 유공관을 통해 관수하면 물이 구덩이 바닥에까지 공급되는 지중관수가 된다.

지중관수는 구덩이의 함수상태를 높임으로써 발근율을 높이고 활착을 빠르게 한다.

- **줄기감기** : 수피가 얇은 편이므로 반드시 줄기감기를 해야 한다. 줄기감기는 구덩이에 나무를 앉히기 전 눕혀진 상태에서 작업하는 것이 편하다. 줄기감기는 피소(皮燒, sun scorch, 고열의 직사광선에 내 수피가 손상되는 현상), 상열(霜裂, frost crack, 겨울 밤낮의 기온 차이에 수피가 세로로 터지는 현상) 등의 기상피해를 예방한다.
- **전정** : 자연수형 가꾸기를 한다. 통행에 방해되거나 꺾인 가지, 찢어진 가지, 병해충 피해지 등을 제외하고는 전정하지 않는다.

■ 참고문헌

1. 홍성천, 변수현, 김삼식. 1987. 원색한국수목도감. 개명사. pp. 310.
2. 국립수목원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 식물
3. 윤주복. 2008. 나무 쉽게 찾기. 진원출판사(주)
4. 조무연. 1987. 한국수목도감. 임업연구원



김호준 박사
그린과학기술원 원장